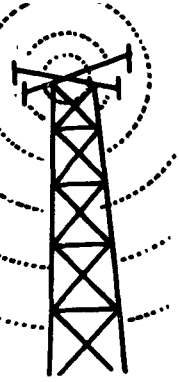


# 7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 不況중에도 종계 입식은 작년 수준

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금융긴축정책, 소비절약 운동등은 양계산물의 소비도 위축시키고 있다. 년도별로 종계입식 현황에는 보는 바와 같이 78년도의 무리한 종계입식은 79년 양계경기를 불황으로 몰고 왔으며, 특히 79년의 종계 입식이 산란계의 경우 전반기에 80%, 후반기 20%, 육용계의 경우 전반기 74.3%, 후반기 25.7%가 입식되어 지나치게 전반기에 종계가 입식 되므로써 불황을 더욱 심각하고 장기화 되게 하였다.

78년도의 종계입식이 과다하였고 특히 전반기에 홍수 입식되어 금년에 큰 불황을 당하

면서도 지난 4월까지의 종계입식이 78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되어 다시 80년도의 양계 경기를 불안하게 하고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5월 이후의 종계입식 현황이 집계되지 않았으나 계속 이러한 추세로 종계



년도별 종계 입식 현황(우)

월별	73		74		75		76	
	산란	육용	산란	육용	산란	육용	산란	육용
1	26,800	8,200	19,262	6,700	16,310	10,900	4,080	8,570
2	39,826	29,250	18,920	12,100	10,160	9,870	12,787	—
3	37,447	45,700	22,898	21,700	32,396	9,850	41,623	39,710
4	29,980	31,960	30,283	24,002	33,680	7,250	57,155	51,025
5	31,350	56,050	32,742	47,919	34,032	20,220	69,611	73,600
6	27,128	25,050	27,800	34,800	28,287	51,400	59,056	69,231
7	14,830	42,778	15,990	44,820	30,510	29,470	61,669	61,775
8	9,000	35,590	25,562	62,813	15,375	41,210	23,945	52,004
9	—	11,630	19,456	23,770	15,520	30,660	19,800	22,450
10	—	9,770	5,110	15,600	2,390	20,715	11,352	10,300
11	—	10,000	3,950	3,300	—	10,380	9,680	3,050
12	—	—	—	—	3,330	5,000	11,850	6,720
계	216,361	305,978	220,973	298,844	221,990	246,925	362,608	398,435

1. 78월별 PS.분양실적 (GPS. 농장보고집계)

월별	산란	육용	계
1	81,600	85,136	166,736
2	57,800	145,717	203,517
3	73,438	198,210	271,648
4	76,270	193,180	269,450
5	124,611	204,500	329,111
6	101,885	125,140	227,025
7	66,615	75,960	142,575
8	15,650	49,530	65,180
9	6,650	43,930	50,580
10	14,110	42,190	56,300
11	6,960	58,850	65,810
12	19,400	58,240	77,640
계	644,989	1,280,583	1,925,572

2. 79월별 PS.분양실적

월별	산란	육용	계	78대비
1	42,630	105,260	147,890	88.7%
2	43,810	150,310	194,120	95.4%
3	43,800	248,400	292,200	107.5%
4	50,050	145,980	196,030	72.8%
5	40,475	120,830	161,305	49%
계	220,765	770,780	991,545	79.9%

※ 도입물량 제외한 것임

산란 48,000수 육용 175,000수 수입추천(79.5 31 현재)

가 입식될 경우 불황의 장기화로 철저하게 양계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어쩔수 없이 종계가

입식될 경우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업체가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79년 하반기 월별 cc 생산 추정수수

	산 란 계	육 용 계
7	3,373,525	9,520,000
8	3,063,143	8,580,000
9	2,850,831	8,360,000
10	2,289,452	9,590,000
11	1,957,078	10,720,000
12	1,938,821	12,740,000

## 양계 사육규모 점차 기업화

닭의 사육수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닭 사육수수는 계란이나 닭고기의 수

표 1. 닭사육규모별 호수

(78. 12. 31, 현재)

구 분	계	지 수	1~49마리	50~99	100~199	20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999	3,000~3,999	4,000~4,999	5,000~9,999	지 수	10,000마리 이상	지 수
1974	1,001,885	100	978,883	14,630	1,496	2,568	1,397	739	456	434	208	578	326	100	170	100
1975	1,094,464	109.2	1,086,753	1,121	702	976	1,340	905	547	717	489	244	448	137.4	222	130.6
1976	1,226,771	123.4	1,227,628	1,312	666	1,128	1,582	1,052	641	928	595	290	641	196.6	308	181.2
1977	1,178,762	117.7	1,168,690	703	647	1,037	1,925	1,371	854	1,178	1,177		823	252.5	351	206.5
1978	1,172,054	117.0	1,159,407	790	822	812	1,822	1,629	1,182	1,286	581	1,882	1,304	400.0	537	315.9
서울	437	0.04	310	—	—	2	18	14	25	19	22	39	16	1.23	8	1.49
부산	1,259	0.11	1,010	—	—	18	52	29	31	31	9	38	28	2.15	13	2.42
경기	86,709	7.4	82,890	60	90	99	350	468	322	493	179	804	660	50.61	294	54.75
강원	60,461	5.16	59,970	70	40	35	57	62	43	46	19	70	38	2.91	11	2.05
충북	63,324	5.4	62,940	10	20	33	49	55	41	42	21	66	37	2.84	10	1.86
충남	171,465	14.63	170,070	150	100	84	249	188	113	141	52	172	112	8.59	34	6.33
전북	165,672	14.14	165,060	50	120	79	131	87	34	24	13	43	19	1.46	12	2.23
전남	254,252	21.69	253,140	200	120	90	168	110	105	82	42	103	75	5.75	17	3.17
경북	201,752	17.21	199,007	60	192	203	446	384	317	300	172	402	191	14.65	77	14.34
경남	165,467	14.12	163,940	180	120	164	281	220	136	98	46	122	112	8.59	48	8.94
계	1,221	0.10	1,070	10	20	5	21	12	15	10	6	23	16	1.23	13	2.42

요증가를 보다도 더욱 빨리 급격히 증가 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에따라 불황이 오고 양계 농가들이 도산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축산진흥회 조사부 자료에 의하면 78년말 닭의 사육수수가 4천만수를 넘어 '전년대비 34.8%나 증가 하므로써 작년말부터 유례없는 장기간의 불경기가 오고 있다.

특히 양계 규모도 5,000수 이상의 기업 양계장이 77년말에 비하여 56.8%가 증가하여 기업화 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불경기가 더욱 장기화 되고 있다.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5천만수 규모 양계농가의 수는 74년에 비하여 78년에는 400%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체 마리수에서 비중도 74년 11.3%에서 20.4%로 크게 증가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양계경영 규모로 되어가고 있다.

용도별로는 산란용이 68.1% 육용이 31.9%이며 도별로는 경기 40.06% 경북 16.5% 충남 경남이 각기 9.25%의 순이다.

표 2. 닭 연령별 성별 및 용도별 마리수

(1978. 12. 31)

구분	연령별 성별 마리수									용도별		
	합계	3개월미만	3~6개월			6개월이상			합계	산란용	육용	
			계	암	컷	수	컷	수				
1974	18,814,204	3,731,285	2,983,541	2,549,948	433,593	12,099,378	11,182,302	917,076	18,814,204	13,842,310	4,971,894	
1975	20,938,732	5,112,761	3,258,911	2,860,962	397,949	12,567,060	11,591,366	975,694	20,938,732	13,284,730	7,654,002	
1976	26,325,190	6,601,070	3,985,893	3,552,244	433,649	15,738,227	14,651,287	1,086,940	26,325,190	-	-	
1977	30,224,309	9,337,481	3,970,263	3,639,232	331,031	16,916,565	16,023,580	892,985	30,224,309	22,224,853	7,999,456	
1978	40,753,249	15,499,758	4,141,367	3,788,243	353,124	21,112,124	20,164,780	947,344	40,753,249	27,755,409	12,997,840	
서울	521,160	178,370	31,570	31,570	-	311,220	310,440	780	521,163 (1.28)	419,783 (1.51)	101,380 (0.78)	
부산	1,143,760	473,380	167,990	167,470	520	502,390	501,370	1,020	1,143,760 (2.81)	833,840 (3.00)	309,920 (2.38)	
경기	16,325,412	7,245,605	1,174,759	1,138,226	36,533	7,905,048	7,832,493	72,555	16,326,002 (40.06)	11,176,032 (39.62)	5,149,970 (15.82)	
강원	1,682,634	854,164	174,210	148,260	25,950	654,260	608,190	46,070	1,682,634 (4.13)	753,640 (2.72)	928,994 (7.15)	
충북	1,163,448	710,437	90,220	70,590	19,630	362,791	318,019	44,772	1,163,448 (2.85)	282,541 (1.02)	880,907 (6.78)	
충남	3,769,900	1,229,619	350,811	317,466	33,345	2,189,470	2,070,258	119,212	3,769,900 (9.25)	2,767,267 (9.97)	1,002,633 (7.71)	
전북	1,919,983	349,726	220,106	197,936	22,170	1,350,151	1,210,930	139,221	1,919,933 (4.71)	1,414,444 (5.1)	505,539 (3.89)	
전남	3,278,620	1,020,865	507,436	428,241	79,195	1,750,319	1,542,425	207,894	3,278,620 (8.05)	1,996,114 (7.19)	1,282,506 (9.87)	
경북	6,722,972	1,802,936	962,116	872,990	89,126	3,957,920	3,768,611	189,309	6,722,972 (16.5)	5,345,782 (19.24)	1,377,190 (10.6)	
경남	3,768,959	1,486,992	384,449	342,784	41,665	1,897,518	1,771,677	125,841	3,768,959 (9.25)	2,387,968 (8.6)	1,380,991 (10.62)	
제주	456,401	147,664	77,700	72,710	4,990	231,037	230,367	670	456,401 (1.12)	387,001 (1.4)	78,400 (0.6)	



표 3. 닭 사육규모별 마리수

구분	계	1~19마리	20~49	50~99	100 ~199	20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2,499	2,500 ~2,999	3,000 ~4,999	5,000 ~9,999	10,000마리 이상
1974	18,814,204	5,178,348	366,502	93,925	594,784		955,623	840,301	734,385	911,138	542,492	2,082,003	2,125,373	4,389,330
1975	20,938,732	5,816,039		66,056	90,936	321,626	923,614	1,026,049	889,405	1,608,733		2,601,117	2,800,584	4,794,573
1976	26,325,190	6,004,715	385,506	78,837	90,411	378,713	1,086,491	1,179,752	1,037,728	1,305,538	785,801	3,128,441	4,115,246	6,748,011
1977	30,224,309	5,219,538	226,420	46,614	86,882	349,872	1,324,461	1,548,207	1,390,884	1,694,910	962,608	4,227,964	5,238,340	7,907,609
1978	40,753,249	5,266,627	219,085	48,540	15,602	272,491	1,248,153	1,815,741	1,927,577	2,668,733	1,515,106	6,636,494	8,324,979	10,694,121
비율	100	12.92	0.54	0.12	0.04	0.67	3.06	4.46	4.73	6.55	3.72	16.28	20.43	26.24
서울	521,160	1,380	1,030	-	-	670	11,070	14,850	39,800	38,700	56,150	129,680	100,530	127,300
부산	1,143,760	5,450	870	-	-	6,120	37,020	32,890	49,510	63,780	22,620	134,300	162,500	628,700
경기	16,325,412	377,160	29,330	4,590	9,800	33,496	248,805	509,219	524,415	1,010,779	463,010	2,830,900	4,248,306	6,041,602
강원	1,682,634	288,760	14,500	3,940	5,820	12,020	38,114	66,960	70,250	95,480	49,200	257,836	248,930	530,824
충북	1,163,448	259,910	11,350	500	2,200	10,670	32,030	62,335	65,358	86,100	54,800	229,950	229,100	119,145
충남	3,769,900	786,660	32,710	9,750	14,540	27,797	165,230	204,142	181,470	292,192	135,684	598,977	696,238	624,510
전북	1,919,983	809,490	47,740	3,200	16,380	26,347	85,704	95,200	57,240	49,233	35,720	156,913	18,573	418,243
전남	3,278,620	1,144,170	38,700	12,730	17,610	30,637	109,189	119,510	167,153	168,850	108,360	360,765	469,840	531,106
경북	6,722,972	908,317	26,665	3,320	29,402	69,812	313,928	440,563	525,084	635,642	452,332	1,424,002	1,218,204	657,701
경남	3,768,959	681,880	22,190	9,810	16,950	53,132	193,302	256,342	221,732	207,377	121,630	428,947	729,158	826,508
제주	456,401	3,450		700	2,900	1,790	13,760	13,730	25,565	20,600	15,600	84,224	103,600	170,482

## '81년도에 축산업에 대한 모든 세제 감면 끝난다

축산업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통령각하의 특별배려로 그간 우리나라 축산업은 놀랄만한 발전을 하여왔다. 이러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감면의 혜택이 큰 역할을 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69년부터 7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전액감면과 그후 3년간의 반액 감면과 축산업에 사용되는(목장용)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면제는 78년 말로 모두 종료되게 되었다. 정부는 76. 12. 22일 축산업을 더 보호 육성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위산업이나 기타 주요 중공업등과 같은 비중을 두어 중요산업으로 지정하여 축산업을 개시한 해와(소득발행년도) 그후 3년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조세감면 규제법 4조의 1항) 또 조세감면 규제법 제18조에는(적용시한) 이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법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 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期分 및 사업년분 또는 그 기간중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 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新說 76. 12. 22)로 되어있어 축산업을 한해라도 빨리하여야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이 법 18조에 의하여 81년도 말에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 되므로써 78년말 재산세 취득세 감면기간 종료와 함께 모든조세 감면 혜택은 끝나게 된다

그간 축산업이 발전은 하였으나 아직도 상당량의 고기와 분유등이 외국의 수입에 의존되고 있어 현재도 여러가지 경영이 어려운 형편인데 조세감면의 혜택마저 없어질 경우 축



산업이 위축되어 더욱 많은 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거나 앓을지 우려된다.

현재 조세감면 규제법 제4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일부 일선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78년 귀속소득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책자의 자구해석의 견해 차이로 지난 5월말까지의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본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기에 참고로 소개한다.

서울지방 국세청 문서번호 1234-6727 (79. 6. 1) 제목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관한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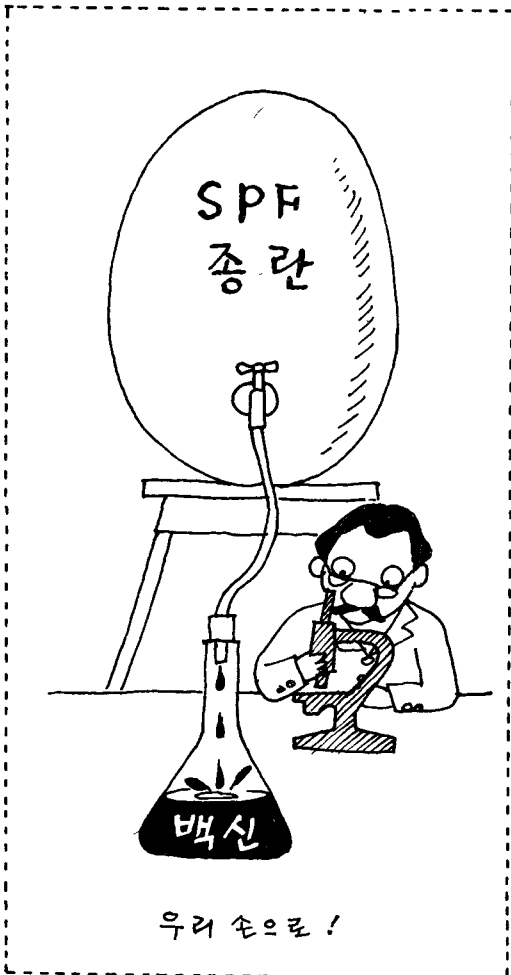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

구분	년도					
	77	78	79	80	81	82
1977년 사업개시의 경우	100%	100%	100%	100%	50%	0%
1978년 사업개시의 경우		100	100	100	100	0
1979년 사업개시의 경우			100	100	100	0
1980년 사업개시의 경우				100	100	0
1981년 사업개시의 경우					100	0

## SPF 종란으로 백신제조 시판

국내에서도 SPF종란으로 뉴캐슬 생독백신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백신제조 메이커인 녹십자 수의약품(주)에서 미국으로부터 SPF 종란을 수입하여 뉴캐슬 B<sub>1</sub> 생독백신을 제조 지난달 부터 시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뉴캐슬 B<sub>1</sub> 백신은 일반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종란을 사용하므로써 백신속에 마이코프라스마나 살모넬라균들이 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실제 야외에서 생독백신 접종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있을때마다 백신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P L, GPS가 도입 되면서부터 최소한 종계만은 SPF 종란으로 제조한 백신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협회에서도 이의 실천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한 바도 있었으나 형편에 의하여 실천에까지 옮겨지지 못하는 못하였 었다.

SPF 종란이란 Leukosis - Sarcoma (Avian tumor inducing) Virus와 그외 여러가지 병인체가 없는 계군으로 부터 생산되는 종란으로 그간 안양가축위생연구소 에서도 실험적으로 소량 생산하여 완었다.

SPF 종란은 그 생산하는 회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이번 녹십자 수의약품에서 수입된 종란은 추백리의 18개 종류의 병인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신제조에 사용되는 계란은 특정 병인체가 없어야 함은 상식이며 만약 다른 병원체에 오염된백신은 그 효력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어 선진 외국에서는 백신제조에는 SPF 종란 사용이 상식화 되어있다고 한다.

이제 양계 중진국의 대열에선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많은 백신, 효과높고 안전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민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수산부는 금년에 축산진흥기금에서 거액을 융자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국내에서 필요한 SPF 종란을 생산하게 한것 등은 백신 제조에 SPF 종란의 사용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조일석에 개혁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황의 양계업체에 밝은 소식이야 아닐 수 없다. 다만 SPF 종란을 사용하여 백신을 제조할 경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문제는 SPF 종란으로 제조한 백신을 사용 하므로써 얻어지는 보이지않는 이익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될 것이다. 이제 양계경영이 집단화하고 대규모화 함으로써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계만이 발전할 수 있으며 좀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사양관리가 양계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것을 생각할때 이번 녹십자수의약품(주)에서 시도한 SPF 백신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여 모든 생독 백신이 SPF 종란으로 제조되어지기를 바란다